

영암 김단례씨 삼성효행 대상



제33회 삼성효행상 대상 수상자로 영암군 미암면에 거주하는 김단례(63)씨가 선정됐다.

삼성복지재단(이사장 이수빈)은 제33회 삼성효행상 수상자 17명을 확정, 최근 발표했다.

달며느리인 김씨는 대장과열과 콩팥질개수술로 병원 중인 96세의 시부(지난해 7월 별세)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87세의 시모를 40여 년간 지극정성으로 봉양했다. 김씨는 이를 위해 20여 년간 어판장을 하기도 했다.

김씨는 상금 3천만원을 받게 된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태평로 삼성생명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광필상기자 kps@kwangju.co.kr

과영체 완도교육장 '다산 목민봉사 대상'



완도교육청 과영체(사진) 교육장이 '제1회 다산 목민봉사 대상'을 수상했다.

강진출신인 과 교육장은 군동 초등학교에서 교직에 첫발을 내딛은 후 평생을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인재육성에 봉사해왔다.

지난 1982년 가우도 분교 재직시에는 제 28회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이같은 교육열정을 줄거리로 과학영화가 만들어져 상영돼 과학의 날 유공교원으로 대통령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과 교육장은 강진교육장 재직시 성전과 기숙사 지원예산 확보, 강진동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강진중 관악부첨단 예산지원 등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원도=정은조기자 ejchung@

올해의 여성에 이에리사 前 태릉선수촌장



여성신문은 제3회 올해의 인물에 태릉선수촌장을 지낸 이에리사 용인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2005년 최초의 여성 선수촌장으로 부임해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7위의 결과를 일궈낸 주역으로 선수촌장 취임 후 새로운 여성 리더십을 보여준 점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MBC 북한전문 기자 김현경씨 등 10명은 제7회 '미래를 이끌어 갈 여성 지도자(미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3일 오후 3시 국회 현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기부짱' 류근철 박사 KAIST서 무료 의료 봉사



개인 기부액으로는 사상 최고인 578억원을 지난해 KAIST에 선뜻 내놓아 척박한 우리 기부 문화에 경종을 울렸던 원로 한의학자 류근철(83) 박사가 이번에는 KAIST에서 무료 의료 봉사를 펼친다.

KAIST에 따르면 학교 측은 류 박사의 의학 및 의 공학 연구와 한방 진료 등을 위해 학내 행정 분관동 2층에 '류근철 연구소 및 한의원'을 개관키로 했다. 류 박사는 이 연구소와 한의원 마련 비용을 전액 기부했으며 공사가 끝나는 오는 3월부터 하루 100명 안팎의 KAIST 학생들을 무료 진료할 계획이다. 또 진료실 한쪽에 별도 학습공간을 만들어 하루 한가지씩 의술을 소개하며 학생들과 토론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진연 전 국회의원 별세



제 9, 10, 12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진연 전 의원이 12일 오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8세.

이 전 의원은 신한민주당과 신민당 소속으로 활동하며 신민당 원내수석부총무와 통일민주당 전라남도 도지부장, 국회 내무위 건설위 간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 1987년 제13대 대선을 앞두고는 김영삼 김대중 양김(兩金) 후보의 단일화를 호소하며 통일 민주당 분당 반대에 앞장섰다. 빙소는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 16호실, 발인은 15일 오전 7시, 장지는 경기 양평. ☎(02) 3410-6916.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628 FAX (062) 222-4938, 222-4918

일자리 안내 = 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 = 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봉사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 보호소 무료 상담 = 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 = 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문의 062-363-2300. ▲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

모집 = 수지침 요법을 배워 사회봉사에 참여할 분. 무료. 018-610-3360.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 = 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불링 동호회 '다이아몬드' 회원

모집 = 30세 이상 부부,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011-607-0347.

▲한국웃음협회 회원 모집 = 건강 회복과 웃음문화 보급을 위한 웃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016-

607-1958.

▲어린이재단 전남기정위탁 지원 센터 위탁 아동·부모 모집 = 친부모의 사랑·가족 등으로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과 봉사 차원에서 아동을 양육해 줄 위탁부모 모집 061-279-1225~9.

▲종합민요사랑모임 회원 모집 = 민요를 사랑하며 사회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100원회 회원 모집 = 1일 100원으로 부담없이 이웃 사랑 실천하실 분 011-666-0660.

▲사랑의 교실 중·고등학교 과정 교사, 수강생 모집 = 국어·영어·수학·사회과목 무료 봉사자, 월~금요일 오후 7시~10시30분 223-8529, 016-223-9541.

▲꿈을 듣는 사람들(광주학당) 학생 모집 = 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 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무료 강의. 서방시장안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수도방위사령부 제33경비단 호남 전우회 모집 = 김인기(부회장·불사조 321기) 011-633-5747.

▲사랑의 배움학교 문해 한글과 정 지원봉사 교사 및 수강생 모집 = 성인한글 기초·중급·고급반, 중입·중장고시반, 한문반, 광산구 하남 성심병원 인근. 062-951-5397, 011-9456-6037.

▲운암골 족구회 회원 모집 = 일요일 오후 운암동 예술고. 011-609-

2850(전일간).

▲인우회 회원 모집 = 광주지역 전·외경 전역자들의 모임, 회장 019-277-0007.

부동

▲장사남씨 별세 방일·방삼·방선·방민·성호·선자·희숙씨 부친상 = 밭인 13일(화) 문흥동 그린장례식장 9분향소. 062-250-4412.

▲이재숙씨 별세 정경석·영중(현 대자동차)·점숙·미숙씨 모친상 = 밭인 14일(수) 조선대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배성수씨 별세 명환·경심·선화씨 부친상 = 밭인 14일(수) 학동 장례식장 401호. 062-227-4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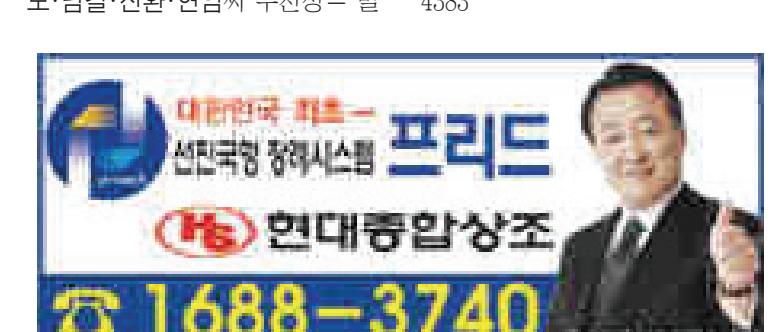
인 13일(화) 학동 금호 장례식장 201호. 062-227-4382

▲강주남씨 별세 문호·문태·다래씨 부친상 = 밭인 14일(수)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385

▲송영화씨 별세 김애련씨 상배정상·은지씨 부친상 = 밭인 14일(수) 문흥동 그린장례식장 12분향소. 062-250-4412

▲이재숙씨 별세 정경석·영중(현 대자동차)·점숙·미숙씨 모친상 = 밭인 14일(수) 조선대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배성수씨 별세 명환·경심·선화씨 부친상 = 밭인 14일(수) 학동 장례식장 401호. 062-227-4383



공직사회 웃음 바이러스 퍼뜨려요

광주 북구청 동아리 '아침을 여는 친절 방송'



12일 오후 광주시 북구청 방송동아리 회원들이 청사 내 2층에 마련된 방송실에서 방송에 앞서 대본 연습을 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청 제공)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동료에게 건넬 수 있는 여유를 갖고 하루를 보내세요. 민원인에게는 항상 웃음으로 대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광주시 북구청에서는 매일 오전 8시 50분부터 9시까지 스피커를 통해 밝고 상쾌한 음악과 함께 침내 라디오 방송에 물려펴진다.

세무과, 교통과, 건설과 등 구청 13개 국·과 직원 등으로 구성된 20여명의 북구청 방송 동아리 회원이 '아침을 여는 친절방송'을 진행하는 주인공이다.

학창시절 방송부 활동을 했던 유경협자에서부터 경험이 전혀 없는 아마추어 방송인으로 구성된 '북구청 방송 동아리'는 햇수로 3년 동안 총 350여 회에 걸쳐 직원들에게 '신나는 아침'을 선사하고 있다.

이들의 가장 큰 임무는 생활정보 등 일상적인 주제와 함께 상쾌한 음악을 담은 방송으로 직원들을 '춤추게' 해 민원인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다.

'아침을 여는 친절 방송'은 지난 2006년 12월에 결성돼 대본 작성과 마이크 테스트 등 한 달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7년 1월 3일 첫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이 안정화 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음악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업무를 못 보겠다'는 항의전화가 오기도 하고, '왜 매일 젊은 사람들을 음악만 틀어주느냐'는 핀잔을 들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엔 점심과 저녁에도 방송을 해 달라는 직원들의 협박성 민원(?)이 이어질 정도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동아리가 됐다.

이같은 인기에 힘입어 점심과 저녁 시간대의 방송 신설을 검토 중이지만, '아침을 여는 친절 방송'의 타이틀을 고지해 작업부터 행복한 고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동아리에 가입하겠다는 직원들의 문의도 빗발쳐 이제는 자체 시험을 통해 회원을 모집해야 할 판이다.

북구청 방송동아리 회장은 강경옥(여·42·의회사무국)씨는 "개인별 부서 업무 처리와 방송준비로 봄은 고되지만, 직원들의 '오늘 방송 좋았어'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사라진다"며 "북구청의 활기찬 아침시간은 우리 방송동아리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밝게 웃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1일 제66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기자회견장에서 작품상 수상작 '슬럼독 밀리어네어'의 감독인 영국의 데니 보일과 주연 배우 프리다 페르 티브이 함께 트로피를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슬럼독 밀리어네어'

골든글로브 4관왕

故 히스 레저 남우조연상

'슬럼독 밀리어네어'가 브래드 피트, 케이트 윈즐리, 리어나도 디캐프리오를 늘렀다.

인도 뮤바이의 빈민가 고아에 대한 이 영화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베를린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 66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지명받은 부문 모두에서 상을 받아 4관왕에 올랐다.

'슬럼독 밀리어네어'는 드라마 부문 작품상, 감독상(데니 보일), 음악상(A.R. 라만), 각본상(사이먼 뷔포이)을 가져갔다.

이 영화는 무명배우들로 피트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윈즐리와 디캐프리오의 '리볼루셔너리 로드', 윈즐리의 '리더', 론 하워드 감독의 '나슨/프로스트'를 눌러 과반을 일으켰다.

고(故) 히스 레저는 사후 1년 만에 '드크 나이트'로 남우조연상을 받았고, 여우조연상은 '리더'의 케이트 윈즐리가 받았다.

윈즐리은 '리볼루셔너리 로드'로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도 받아 2관왕에 올랐다.

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은 '페슬리'의 미크 루크가 받았다. 뮤지컬/코미디 부문 작품상은 우디 앤더슨의 '비키 크리스티나 바르셀로나'가 피트와 조지 클루니의 '번 애프터 리딩'과 메릴 스트립의 '맘마미아!'를 제치고 수상했다.

/연합뉴스